

‘시민 편의냐, 예산 낭비냐’...여수시 별관 증축 찬반 ‘팽팽’

8개 청사로 나뉘어 민원인 ‘불편’ 겪어...시장 핵심 사업 시의회·시민단체 “코로나 상황 수백억 세금 낭비” 반대

민선7기 여수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청 사 별관 증축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본청사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여(廳)통합이 되면서 학동에 있는 1청사에 자리 잡았다.

통합 이후에도 여서동에 있는 제2청사와 문수동 제3청사(문수청사)로 분산되는 등 8곳에 사무실이 분산됐다.

문수동 제3청사는 여수교육지원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썼지만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청사 통합론이 제기됐다. 문수청사는 현재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임시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이전한 상태다.

여수시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본청 뒤편 주차장에 392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을 증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여수시는 별관 증축을 위해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예산 낭비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달 추가경정 예산안에 별관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1300만원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전액 삭감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시의회에 별관 증축 반대 방침에 동조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성명을 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시민의 삶을 챙기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출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장이 시청 별관신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행정력과 세금낭비가 뻥한 사업추진

에 시민은 떠나고 공무원만 남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와 여수시새마을협회, 바르게살기운동여수시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자생단체협의회는 시청 별관 증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수시자생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로 나뉜 여수시 청사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오고 있다”며 “정치 논리로 다가서지 말고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관을 증축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별관 증축 문제를 두고 지역 사회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시민의 여

론을 물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별관을 증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단체들도 여론 조사를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도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사가 분산돼 시민은 물론,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청사 통합 내지는 별관 증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시의회가 예산 낭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준의 예산이어서 의회를 상대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4차 산업혁명 SW인재 육성 나선다

인공지능·블록체인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5월7일까지 신청

광양시는 5월7일까지 지역 산업계 디지털 혁신과 전략산업 육성, 신기술 장업을 이끌어갈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 교육 2기 수강생 20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ICT 인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중 하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전남도내 기업 재직자,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는 물론 인공지능·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전남 ICT인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비전공자를 위한 기본과정, 전공개

발자를 위한 프로젝트, 특화과정으로 17개 세부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딥러닝 언어교육, 인공지능 영상·음성처리, 자격증 취득과정, 감시영상 과정 등이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하반기부터는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2층 전문 교육실에서 ‘집체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허석 순천시장 등 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순천시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순천대에 재학 중인 미안마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순천대 재학 미안마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훈훈’

순천시가 순천에서 유학 중인 미안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감동을 주고 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2일 순천시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순천대에 재학 중인 미안마 유학생 22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안마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달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국제교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규정을

신선했다.

첫 수혜자로 군사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안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현재 미안마의 상황은 엄혹했던 80년 5월 항쟁을 겪은 우리에게 더 공감하고 아픈 상처를 떠오르게 한다”며 “머나먼 타국에서 배움의 열정을 펼치는 미안마 유학생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있는 짚풀공예 체험관이 새단장해 다시 문을 연다. <곡성군 제공>

섬진강기차마을 짚풀공예 체험관·낙죽장도 전시관 이달말 재개장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짚풀공예 체험관과 낙죽장도 전시관이 4월 말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짚풀공예 체험관과 낙죽장도 전시관은 기차마을 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 관광객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

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재정부에 나섰다. 짚풀공예 체험관은 농기구, 짚풀공예, 민속산악 전시관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작물 파종, 성장, 수확, 저장 등 농경생활의 모습을 짚풀 공예와 연결해 스토리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낙죽장도 전시관에는 대장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금속을 달궈 담금질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안계 농촌체험마을과의 협업 운영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와 다양화를 꾀할 생각이다.

/곡성=박중태 기자 pj@

22일 지구의 날 구례읍 경찰서~구례고 560m ‘차 없는 거리’

구례군이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구례읍 일원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는 구례 시민단체의 제안서를 시작으로 봉남리 이장, 상가 범영회, 시민·기관단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개최가 결정됐다.

‘차 없는 거리’는 구례읍 봉성로 경찰서 로터리에서 구례고등학교 정문까지 약 560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통제하고 벚꽃시장, 문화행사, 아나바다장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다.

차량통제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이용과 학생들 하교시간을 고려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동안 시행된다.

문화행사로는 구례의 대표적인 프리마켓인 ‘봉정’을 운영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소한 밴드’, ‘지희’, ‘옥수수’ 등의 야외 공연이 펼쳐진다.

또 아나바다장터, 기후위기와 반달곰 관련 전시회, 중고책 판매, 거리 상상 쓰기, 주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